

신안서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

12월 8일~9일 이틀간 자은도서 섬 문화 알리고 관광 방안 모색 강연·워크숍·전시·공연·섬 투어

신안군이 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다양한 섬들과 연대하는 장이 마련된다.

신안군은 오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신안군 자은도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에서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과 국회 섬발전연구회, 태평양관광기구가 주최하고,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국장이자 세계관광기구(UNWTO)의 이사를 역임한 올란도 페르도모, 드웨이 벤트리 사모아 관광청 총괄국장, 구스데 나마루파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청장(바둥 주), 국회 섬발전연구회 서삼석 대표의원, 사단법인 섬연구소 강제운 소장 등 30여명의 섬 지역 발전, 지속가

능 관광, 섬 문화 전문가가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포럼 조직위원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꽃 핀 섬문화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무한한 자원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한 섬사람들의 지혜와 응전의 결과이다. 따라서 섬문화는 인류에게 닥친 각종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할 가치의 보고(寶庫)"라며 본 포럼 기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을 통해 ▲섬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섬들을 현실적으로 돕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포럼의 주요 일정은 강연과 워크숍, 전시, 공연, 신안섬 느끼기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또한 회원국들과 의정서를 체결해 세계의 섬들이 연대를 통해 함께 펼쳐 나갈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포럼 공식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현장참가(참가비 무료, 선착순 100명)가 가능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에너지 대상' 총리 표창

ESS 설비 등 에너지 효율 향상 기여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 사장)이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에너지 대상' 시상식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사진>

현대삼호중공업은 ▲전사 에너지절감활동 시행 및 전력수요관리제도 도입 ▲효율설비 개선 ▲ICT기술연계설비 운영개선 및 종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K-EV100 가입 ▲Air Comp 종합효율 향상 등 에너지효율 부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해 지난해 8786kW의 피크 전력(최대 순간전력)을, ESS 설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연간 3000MWh의 주간시간 에너지 절감을 이뤄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도 적극 도입해 연간 발전량 9800MWh의 전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주관하는 '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시책 홍보·교육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회사 대표로 시상식에 참석한 현대삼호중공업 윤철환 부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자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설비 구축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총력 대응

가금농장 주 1회 드론 방역 저점소독시설·통제 초소 운영

영광군이 전국 5개 시도 12개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른 추세로 철새가 유입되는 등 2014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지 않은 영광도 바이러스 관내 유입의 사전차단을 위해 가금 농가에서 소독하기 어려운 축사 지붕 등 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해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광군은 저점소독시설 1곳과 가금농가 입구 통제 초소 1개소를 운영하여 가금 관련 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시행하고 가금농가 전담공무원 50명을 활용한 전화 예찰과 방문 점검 등으로 8년 연속 고병원성 AI 미발생 청정영광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이 가금사육 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한 저점소독으로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가금농가에게 일제소독의 날 실천,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하고 주도적인 차단방역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군, 음식점 업주 식품위생·친절교육

진도군이 일반 음식점 업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쏠비치 진도를비웃 진도항-제주항 취항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도군 청 대회의실에서 22일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음식점 이용자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 ▲진도 관광지와 유적지 소개 ▲고객들에게 친절 응대를 위한 웃음치료와 친절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 교육과 함께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떡깨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일반 음식점 업주 대상 위생교육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생교육 미참여자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js7777@

해남군, 제1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

23일 해남군청 문화예술회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역할 모색

해남군이 오는 23일 해남군청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제1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개최한다.

해남군과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관련해 '한반도 기후변화대응 농업의 시작, 해남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이기웅 순천대 명예교수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향후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연구원 김원진 전문연구위원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경제적 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애 연구위원의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 해남군 오봉호 기후변화대응단장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해남군 추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원 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해남군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심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 삼산면에 오는 조성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1년 9월 국립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 됐으며 2022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오는 2025년 센터 건립 등 기반 조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근대역사거리 일대 교통환경 개선

일방통행·가변주차 시범 운영

목포시가 근대역사거리 일대인 유달동과 만호동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목포시는 일방통행 3개 구간 총 1550m 중 해안로173번길(근대역사1관~여객센터미널 인근)에 대해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시범 운영한다고 밝

혔다.

근대역사유적이 밀집된 이 구간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지

중화사업과 연계해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달 해당 구역 도로 정비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시범 운영하게 됐다. 가변주차는 매월 15일 주기로 운영되며,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근 2개 도로의 일방통행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방통행과 가변주차 운영이 보행자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